

장수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

군내 강소·중견기업 약 13개 기업 현장 면접 인재 채용·구직 상담 등 진행

장수군은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장수군 로컬JOB센터와 함께 지난 30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좋은 일(JOB)이 생긴다!'를 주제로 2021년 장수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주)신진에스엔, (주)농남, 김수미업마생각김치 등 장수군 지역내 강소기업과 중견기업 약 13개의 기업이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해 인재 채용을 실시했다.

또한 구직자들에게는 현장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직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부대행사로 퍼스널컬러를 이용한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지문적성검사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성공 취업 타로점 보기, 무료 증명사진 촬영 등도 진행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 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문자, 종이 등)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도록 했으며, QR코드 체크인과



장수군은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장수군 로컬JOB센터와 지난 30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좋은 일(JOB)이 생긴다!'를 주제로 2021년 장수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체온측정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철저히 행사를 진행했다.

장수군 로컬JOB센터는 매년 장수군 내에 구직자와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용성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수군을 대표하는 취업 전문 알선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써 안전한 채용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구인·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활성화 해 향후 장수군의 고용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3차 재난기본소득지원 만전

진안군, 6~31일까지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 지급

진안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의 신속한 배부를 위해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3차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진안군 주민등록자와, '재난의국민'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에게 농협은행이나 전북은행 선불카드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3번째 지급으로 전라북도 내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중 최고 금액이다.

지난 1·2차 지급에서 읍·면별 상황에 따라 지급처와 방식, 절차 간소화 등으로 집중 지급기간 1주일 만에 90%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해 도내 모범 사례로 부상한 바 있다.

군은 이번에도 읍면별 상황에 맞게 지급처와 방식을 선정해 진행하되, 최

대한 마을 현장에서 찾아가 지급을 할 예정이다.

진안군민이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원 기준일인 2021년 11월 30일 24시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읍·면에서 마련한 지급처에 1회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진안군은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접촉처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철저, 1m 이상의 거리두기 등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등 철통 방역 하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3차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도 군민들에게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군정 발전 유공자 12명에 감사패 수여

진안군은 지난 30일 군정 상황실에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단체와 개인 12명을 선발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감사패는 △전북대학교 LINC+ 사업단, △박성범(농협경제지주 차장), △신왕우(영일유통 대표), △황인준(한국농업경영인진안군연합회 회장), △최민열(고원식품 대표이사), △김진갑(한국수자원공사 차장), △한석호(진안읍), △이효열(진안읍), △박관우(동향면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윤석진(상전면), △최우현(진안군 좌도 분회), △정천면 동구나무아래영농조합법인에 수여됐다.

각 수상자들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전북대학교 LINC+ 사업단은 진안군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야근없는 재정적 지원, ▲농협경제지주 박성범 차장은 농산물 도매분사에 재직하며 진안고원 원예농산물의 공급 판매에 기여, ▲영일유통 신왕우 대표는 진안 고추의 소비와 판매를 이끌어 진안고원 고추시장 활성화 도모, ▲한국농업경영인진안군연합회 황인준 회장은 안전한 고추시장 운영에 협조하고 고추의 품질 향상에 노력, ▲고원식품 최민열 대표이사는 행정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공조를 통해 진안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는데 기여, ▲한국수자원공사 김진갑 차장은 2040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진안군



광역상수도 공급량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진안을 한석호씨는 남모르게 환경 정화 활동에 앞장서며, ▲진안을 이효열 강사는 행정복지센터 시나브로 검정고시반 강사로 활동하며 어르신들의 학업 성취 도모, ▲동향면 사회복지협의회 박관우 회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이웃사랑 실천, ▲상전면 윤석진씨는 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 ▲진안군 좌도 분회 최우현 회장은 백운전승회 최우현 회장은 각종 대회와 공연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주민 화합 도모, ▲정천면 동구나무아래 영농조합법인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이끌며 주민 역량 강화와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전춘성 군수는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업적을 기리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금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진안군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금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강수계관리 기금사업 성과평가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올해 평가는 2020년 결산기준 금강수계 관리기금 10억 이상을 지원받는 12개 관리청을 대상으로 관리청별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질보전활동지원, 오염총량관리사업 5개 분야로 이뤄졌다. 특히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분야에서는 103점을 획득해 12개 지자체 평균인 89점을 훨씬 웃돌며 1위로 선정됐다.

이는 예산집행 및 성과달성도가 100%인 점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언론홍보를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국민관심도를 제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우수', 수질보전활동지원 '매우우수', 오염총량관리사업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돼 포상금 1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모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연중 발생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일까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의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부지방산림청 관내(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서부 경남)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로 시행기관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상태대응팀(063-320-3630~5)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선발된 근로자는 1월 3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워크넷,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보건의료원, 예비성인 대상 건강체험장 운영

24일까지 관내 4개 고등학교 체육관 등지서 부스 설치

무주군 보건의료원은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예비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체험장을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수능시험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무주고등학교와 안성고등학교 비롯해 4개 무주관내 각 고등학교별로 부스가 마련되며, 학생 수가 적은 경우 전교생의 참여가 가능하고 운영은 12월 24일까지다.

부스에서는 건강기초조사 및 건강상

담이 가능하고 건강증진 및 체력활동으로 고3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양, 절주, 금연,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상담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이 투입돼 전문적인 1:1 상담 및 체험을 제공한다.

예비성인들은 관심 있는 분야의 체험 부스를 선택해 집중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번 상담에는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드림잡스쿨 등 5개 기관이 부스별 참여하여 건강 상담을 돕게 된다.

이들 부스에선 혈압·혈당 등 자기혈

관 숫자 알기를 비롯해 신체접수, 금연 상담 및 치매예방 운동법, 청소년 심리검사와 진로적성검사, 정신 고위험군 선별검사, 스트레스 검사, 향수만들기, 특수분장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금연·절주 분야에서는 흡연자의 체내 일산화탄소량 검사와 폐 나이 측정 등 통해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음주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기초검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별로 유증상이 발견됐을 경우 병·의원과 연계해 전문의 상담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조준열 진안군의원, 군수출마 선언

진안군의원 조준열 의원(가선거구)이 지난 30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군수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진안마련출신으로 제8대 진안군의원으로서의 운영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마련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 보건대학 위생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를 졸업했다.

주요경력으로는 마령면장, 안전면장을 역임했으며 진안군보건소장과 진안군의료원장 직무대행과 현재 더불어민주당 진안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

고 있다.

조 의원은 출마를 맞아 진안군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강화를 비롯해 10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후보경쟁에 나서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하면 모든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